

자살 유가족(suicide survivor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 영 아*

충북대학교

변 재 원

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살 유가족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21편, 학회지 논문 31편, 총 52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기초사항, 연구 대상, 연구방법,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의 기초사항을 살펴본 결과 자살 유가족 연구는 심리상담 영역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 대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살 유가족의 개념이 사회공동체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사례에 맞는 치료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계, 상담, 심리적 애도의식, 지역사회 단위의 자살 사후개입, 종교가 주요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 위협,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 자살 사후개입

* 교신저자: 김영아, 충북대학교 교육심리 및 상담 박사과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violet9942@hanmail.net

우리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의 연속선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은 그러한 사건에 대처하며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권석만, 2015).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생에 적응하는 다양한 대처방법을 경험하기도 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외상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DSM-5(APA, 2013)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충격을 주는 사건들 자연재해, 살인, 교통사고, 화재, 폭행 등의 위험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침투적 증상, 회피증상,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 과민한 각성 반응 등을 나타낼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한다(권석만, 2015, 재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위험 상황보다 심리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심리적 위험, 즉 심리적 외상에 대해 잘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각을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방법이나 교육, 상담 등의 장면을 통해 도움 받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다.

그 중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외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심리적 외상의 하나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은 자살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를 옆에서 경험하고 남게 되는 자살 유가족에게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매우 큰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며, 많은 유가족들이 분리의 고통과 시간이 지나도 슬픔과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복합비애(Complicated Grief)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Mitchell, Kim, Prigerson, Marykay, 2004; 장현아, 2009; 변재원, 2014; 강명수, 2015). 또한 자살 유가족은 자살자 못지않게 자살시도나 높은

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박혜선, 2015). 이러한 자살 유가족들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이지만(Sethi, Bhargave, 2003),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대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자살 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의 종류 때문이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의 자살에 대해 억압, 부인하고 싶은 정도로 큰 슬픔과 죄책감을 느낀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의 자살에 대해 일어나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가치 없거나 나쁜 존재, 배신을 당했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슬픔이나 두려움, 황폐함 같은 감정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Greenberg, Paivio, 1997). 또한 가족이 자살했다는 주변의 편견과 낙인현상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며, 고립된 생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Susan, 2000; 김용분, 2005; 이명훈, 2014; 강명수, 2015; 김정남, 2015).

둘째, 실제 자살사건들 중에서는 자살 유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송보도를 통해 이들의 일상생활이 매우 상세하게 다뤄져 유가족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김병철, 2010). 특히 연예인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는 연예인 자살 유가족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현상으로 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Joiner, 2005).

셋째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유가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자살 보도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단위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으로 인해 2차적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혜선(2015)은 한 사람의 자살자 배후에는 최소 5-10명의 자살 유가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에만 14,427명이 자살하여 자살유가족은 대략 7만에서 14만 명으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송윤주(2011)의 연구에서는 유명인 자살보도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정상혁(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1건의 자살사건과 자살 유가족 뒤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실제 비용을 분석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살로 인해 가족, 학교, 직장 등의 사회공동체 등이 겪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위험은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자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 장치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인 최근에 와서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자살 위험자’로 보고, 자살위험에 놓인 사람을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우선 미국은 1956년에서 1957년에 걸쳐 Washington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자살자들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Robins 등(1959)이 자살자의 가족, 학교, 친구, 직장 등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의 심층면담, 경찰 수사기록,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미국자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를 창립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1986년 국립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통해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199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0.2명에서 2011년 16.4명으로 45.7%를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나경세 외 2015).

또한 국외의 자살 유가족 연구는 1980년대 중반쯤 시작되어(김용분, 2005), 가족의 자살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Cvinar, 2005; Dunn, 1988; Mcmenam, Jordan, Mitchell, 2008; Mitchell, Kim, Prigerson, Maryky, 2004; Peters, 2006),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과 일반 사별자와의 심리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Cvinar, 2005; Ellenbogen, Gratton, 2001; Sveen, Walby, 2008), 자살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으로 자조모임, 외상 후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Cerel, Padgett, Conwell, Reed, 2009; Feigelman & Feigelman, 2008; Feigelman, Jordan, Gorman, 2009; Rogers et al, 1982)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여 년간 OECD 8개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2000년대 중반이 되어 서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한두 편씩 등장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의 연이은 자살보도와 2011년 3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최근에 와

서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박혜선, 2015).

이런 실정에서 현재 ‘자살 유가족’이라는 용어도 아직 학문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에서 자살 유가족은 ‘Bereaved by Suicide’, ‘Bereaved Family’로 표현되거나(Cerel, 2000; Ogata, Ishikawa, Michiue, Nishi, Maeda, 2011; Santos, Tavares, Campos, 2015), 주로 ‘Suicide Survivors’로 표현되는데(Cerel, Padgett, Conwell, Reed, 2009; Cvinar, 2005; Dunn, 1988; Ellenbogen, 2001), 이러한 용어가 국내에서는 주로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성수(1998)가 처음 ‘자살 유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용어의 의미와 그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론되지 않았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용어의 사용이 ‘자살 피해자’, ‘자살 생존자’, ‘잠재적 자살자’ 등으로 혼용되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김병철, 2010; 김용분, 이정섭, 2006; 김왕배, 방연상, 2013; 이명훈, 2014). 그러나 ‘자살 생존자’라는 개념은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를 경험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연구들(박지영, 2007; 이명훈, 2014; 임정인, 2015)과 ‘자살 시도자’로 표현된 황순찬(2014)의 연구와 그 의미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혜선(2015)의 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누군가를 자살에 의해 잃은 사람으로 정의하며, 변재원(2014)의 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이란, 자살로 누군가를 잃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등을 일컫는 말로 이는 좁은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가족, 즉 사회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Pitcher & Poland(1992)

는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며, 여러 해를 알고 지내고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자살과 같은 죽음은 그것이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되어 진다고도 하였다(이승연, 2007, 재인용).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자신이 선망하던 연예인, 유명인 등의 자살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남순현, 2008; 김병철, 2010; 김창학, 2011; 한수미, 2012), 이러한 2차적 자살 유가족에 대해 학문적으로 설명할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살 유가족’의 개념이 자살이라는 외상으로 누군가를 잃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및 사회공동체의 의미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자살 유가족 연구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자살 유가족에게 상담적 접근과 사회적인 차원의 사후 개입의 관점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Jordan, & McMenemy(2004)가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 사후 개입방법, 개입의 효과 등을 개관한 연구가 있지만, 국내의 자살 유가족 연구가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관 연구가 없고, ‘자살 유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어 우선 자살 유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그 동안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전망하는 것에

서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살 유가족과 관련된 공식적인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자살 유가족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들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국회 전자도서관(www.nanet.go.kr)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검색 키워드를 ‘자살’,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 ‘자살 사후개입’으로 입력하여 연구물들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는 자살 사후개입으로 표현되거나 외국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Suicide Survivors’를 그대로 변안한 ‘자살 생존자’라는 개념의 혼용, 그 뿐만 아니라 자살 유가족을 지칭하는 개념 대신 남편, 자녀 등 특정 가족 구성원의 자살을 경험하였다는 논문 제목들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살 유가족’이라고 입력하여 검색된 학위논문 38편과 학회지 33편 중, 학위논문과 학회지가 동일한 4편의 학회지를 제외하고 1차로 분석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자살 생존자’로 입력하여 검색한 학위논문 13편, 학회지 23

편 중, 자살시도 후 생존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자살 유가족에 맞는 연구물을 찾아 2차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자살 사후개입’으로 검색하여 학위논문 42편, 학회지 23편 중 자살교육이나 예방에 대한 연구가 아닌, 누군가의 자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가족에 맞는 연구물임을 확인한 후 분석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네 번째로, ‘자살’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학위논문 3,393편과 국내 학회지 4,002편의 논문제목을 두 연구자가 일일이 검토한 후 자살 유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다룬 연구를 찾고, 초록을 확인한 후 분석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도 연구의 내용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의미와 일치하는 연구임을 살펴본 후 이를 만족시키는 학위논문 21편, 학회지 논문 31편, 총 5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절차

연구동향의 분석을 위해 상담분야의 내용분석 방법에서 분류준거 선정 절차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김은하, 박승민, 2011; 박은선, 박지아, 2013; 김지경, 장현아, 2014)과 자살 유가족 연구들을 분석한 Jordan & McMenamy(2004)의 분석준거를 참고하여 분류범주를 정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유가족에 대해 무엇을 보고자 한 연구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연구자가 함께 재검토하여 분류범주를 연구에 맞게 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분류범주 중에서 본 연구에 맞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혹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범주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제목, 출판연도, 학위 및 학회지 논문 구분, 연구 분야
연구대상	자살자와의 관계, 발달단계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내용분석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

과정을 거쳐 최종 분류 범주는 크게 논문의 기초사항(제목, 출판연도, 학위논문/학회지 구분, 연구분야), 연구대상(자살자와의 관계, 발달단계),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내용분석(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

결 과

연도별 발행논문 수

연도별 발행논문 수는 표 2와 같이 2005년 1편의 박사학위논문(김용분, 2005)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는 1, 2편의 연구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010년에 들어서는 학위논문 2편, 학회지 9편 총 11편의 논문이 등장하면서 연구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2011년에 2편으로 주춤

하던 자살 유가족 연구는 2012년 5편, 2013년 6편, 2014년 11편, 2015년 10편으로 현재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분야별 동향

자살 유가족에 관해 연구한 학문분야별 동향은 표 3과 같이 분석대상 논문 총 52편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심리상담으로 21편, 다음으로 보건간호 13편, 기타 분야 9편, 사회복지 6편, 교육 분야 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간호 분야에서는 자살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교육 분야는 학교 단위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건에 대한 사후개입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둘째,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보건간호, 교육 분야의 주된 연구 방향인 자살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 자살 사후개입방법과 더불어 자살 사후개입 모델이나 프로그램 적용, 군대 자살 사망자의

표 2. 연도별 발행논문

출판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학위	석사	-	-	-	1	-	2	2	1	3	4	3	16
	박사	1	-	1	-	-	-	1	1	1	-	5	
학회지	-	1	1	1	1	9	-	3	2	6	7	31	
총 계	1	1	2	2	1	11	2	5	6	11	10	52	

표 3. 연구분야별 분류

분야		심리상담	사회복지	교육학	보건간호	기타	합계
학위	석사	9	1	1	3	2	16
	박사	2	1	-	2	-	5
학회지		10	4	2	8	7	31
총 계		21	6	3	13	9	52

유가족, 특정기법을 적용한 치료 등 다른 분야의 연구들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셋째, 기타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신학, 언론, 의학 등의 분야로 주로 보도를 통한 2차적 자살 유가족 발생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연구대상별 동향

연구대상별 동향 중, 표 4는 자살자와 자살 유가족간의 관계의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들 중에는 한 연구에서 여러 유형의 자살 유가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은하, 박승민(2011)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두 연구자가 여러 차례 만나 논문을 함께 검토하면서 자살자와의 관계 분류

에서는 중복체크하기로 논의하고 평정하였다. 이는 하나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상황의 자살 유가족들이 포함되었지만, 자살 유가족 연구의 특성상 각각의 연구가 자살 유가족이 겪는 실질적 경험에 대해 상세히 살핀 질적 연구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첫째, 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룬 연구는 6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로 분류되는 각 가족 구성원을 따로 다룬 연구들 역시 평균 6.7편으로 직접적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연구들은 그 수가 비슷하였다. 둘째, 상대적으로 학교관계나 지인 등을 포함하는 친구를 다룬 연구는 13편으로 가족구성원 연구보다 많았다. 셋째, 연예인, 유명인, 일반인 등 언론의 자살보도를 통한 2차적 자살 유가족이 해당하는 기타 영역은 21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별 동향 중 자살 유가족의 발달단계별 분류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

표 4. 자살자와의 관계

관계*		가족전체**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친구	기타	합계
학위	석사	-	2	3	2	2	3	11	23
	박사	-	1	1	1	3	1	1	8
학회지		6	4	3	2	3	9	9	36
총 계		6	7	7	5	8	13	21	67

주*. 본 연구에서는 한 연구가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중복체크함.

주**. 본 연구에서 가족전체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함.

표 5. 연구대상 발달단계별 분류

발달단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구분없음**	합계
학위	석사	-	4	10	2	16
	박사	-	-	4	1	5
학회지		2	12	9	8	31
총 계		2	16	23	11	52

주*. 본 연구에서 성인기는 20세 이상 성인부터 60세 이후의 노인까지 포함됨.

주**. 본 연구에서 구분 없음은 모든 연령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포함됨.

와 같이, 분석 대상 논문 52편 중에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23편으로 전체 연구의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16편으로 31%, 연구대상의 발달단계가 구분 없이 이루어진 연구는 11편으로 21.2%, 마지막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2편으로 전체 연구의 3.8%를 차지하였다.

연구방법별 동향

자살 유가족에 관한 연구의 연구방법별 동향은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52편의 연구 중에서 양적연구가 총 22편으로 42.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질적연구가 20편으로 38.5%, 개관연구가 8편으로 15.4%, 질

적·양적 혼합연구가 2편으로 3.8%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실험연구나 척도개발 연구는 없었으며, 주로 회귀분석, 인과관계검정, 구조방정식, 시계열분석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주로 자살 유가족이 겪는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연구한 논문들이 가장 많았으며, 문헌연구, 근거이론 및 사례연구 역시 자살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논문들이었다. 개관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의 특성 및 치료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

분석 대상인 52편의 연구들 중 자살 유가족

표 6.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방법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양적/질적)	합계	
			사례연구	해석/ 현상학	근거이론	문헌연구			
학위	석사	2	10	-	2	1	-	1	16
	박사	-	1	-	3	1	-	-	5
학회지		6	11	2	7	1	3	1	31
총계		8	22	2	12	3	3	2	52

표 7.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

중복체크허용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방법	논문 예	빈도
사회적 관계	김용분, 이정섭(2006); 이승연(2007); 임석택(2009); 윤명숙, 김가득(2010); 박지영(2010); 서에스더(2010); 김가득(2012); 한수미(2012); 홍진표(2012); 김벼리, 신현균, 한규석(2013); 김왕배, 방연상(2013); 이종익(2013); 김용분(2014); 강명수(2015); 황순찬(2015)	15
심리상담 및 관련기관 활용	이승연(2007); 임석택(2009); 김신옥(2010); 홍진표(2012); 강명수(2015); 박혜선(2015); 황순찬(2015)	7
심리적 애도의식	이근무, 김진숙(2010); 김가득(2012); 김벼리(2012); 이명훈(2014); 강명수(2015); 박은빛(2015)	6
학교단위 사후개입 프로그램	이승연(2007); 배주미, 이승연, 김은영(2010); 최바울, 서영석(2010); 김진형, 이지현, 이명수(2014); 최미희, 권지성(2014); 박미라(2015)	6
종교	김용분, 이정섭(2006); 김왕배, 방연상(2013); 김용분(2014); 변재원(2014); 강명수(2015); 황순찬(2015)	6
삶의 의미 재구성	김용분, 이정섭(2006); 김벼리, 신현균, 한규석(2013); 변재원(2014)	3
견뎌내기	김용분, 이정섭(2006); 윤명숙, 김가득(2010)	2



그림 1.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

의 극복요인과 사후개입 방법에 대해 언급한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그 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고, 이를 비율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자살 유가족 연구의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 방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사회

적 관계는 3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 가족의 소중함 인지, 남은 가족원이 함께 지키기, 남은 가족 염려, 남겨진 자식, 함께하기, 같은 유가족 모임, 자조모임, 사별가족 프로그램에서 자살에 대해 털어놓고 마음의 짐 풀기, 정서적 친밀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심리상담 및 관련기관 활용은 전체 빈도의 15.6%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심리교육,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경제적·법적 서비스 제시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심리적 애도의식은 전체 빈도의 13.3%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는 치유적 의식, 자살 이야기쓰기, 추모예배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넷째, 학교단위 사후개입 프로그램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 사후중재 프로그램 적용과 학교 위기상황 및 대처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위에서 개입 가능한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전체 빈도의 13.3%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종교는 전체 빈도의 13.3%를 차지하였고, 종교체험,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종교기관의 자원동원, 신앙으로 이겨나가기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여섯째, 삶의 의미 재구성은 전체 빈도의 6.7%로 삶의 의미 고민, 자기가치와 소망 찾기, 현재에 충실하기, 희망 갖기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견뎌내기는 전체 빈도의 4.5%로 고통에서 벗어나려하기보다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고 견뎌내는 것이 포함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살 유가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의 연구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자살 유가족을 주제로 하여 발간된 학위논문 및 학회지 52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2005년에 1편의 박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연구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명 연예인 자살보다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투데이, 2015. 10.28 일자 기사)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팀은 연예인 사망소식(2005-2011)과 자살률의 상관관계 추적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36.3명의 자살자가 연예인 사망 사건 후 45.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모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직후 하루 평균 자살률이 41.1명, 2008년 또 다른 유명 연예인 자살 후 32.5명이던 평균이 58.6명으로 폭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을 시작으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6건 이상의 유명 연예인 및 정치인의 자살과 관련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이슈와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앙자살예방센터(www.spckorea.or.kr)가 설립되고, 한국생명의전화(www.lifeline.or.kr)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노력들도 확대되었는데, 이와 맞물려 2011년에 잠시 주춤하던 연구가 2012년 5편, 2013년 6편, 2014년 11편, 2015년 10편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률과 함께 자살 유가족의 피해는 현저하게 많은데, 이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자살 유가족에 관해 연구한 학문분야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심리상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살 유가족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이는 앞으로도 심리상담 분야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한 자살 유가족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살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의 양상이 정서적 고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비애 등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타분야에서는 자살예방 및 자살 유가족 보호를 위해 언론보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Joiner(2005)는 언론보도가 부적절한 자살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언론지침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김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언론매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권고 기준이 미비하여, 보도를 접하는 수많은 잠재적 자살 유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영향과 강도를 감안할 때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연구대상별 동향 중 자살 유가족과 자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타(21건), 친구(13건), 자녀(8건), 배우자(7건), 부모(7건), 가족전체(6건), 형제(5건)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시급함을 시사해준다. 이는 직접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자살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언론을 통한 자살보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에스더(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 및 친구관계의 정서적 친밀도가 언론의 자살보도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2차적 자살 유가족이 자신의 현재 삶과 관련하여 외부인의 자살을

어떤 의미로 경험하는지 관련 연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김가득(2012)의 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심리·정서적 고통과 반응 강도의 양상이 다르다고 하여 앞으로 자살자와의 관계 양상에 따른 심리적 경험 및 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자살자,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내담자가 자살한 경우 등 심리상담 전문가 역시 2차적 자살 유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연구대상별 동향 중 발달단계를 살펴본 결과, 성인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청소년기가 31%, 발달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 21.2%, 아동기가 3.8%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 유가족의 발생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살 유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개입방법과 지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연구 중 양적 연구가 42.3%, 질적 연구가 38.5%, 개관연구가 15.4%, 양적·질적 혼합연구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는 주로 언론보도가 자살 유가족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차지하였고, 자살 유가족이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이라 실험연구나 척도개발 연구는 없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애도 척도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황정운, 김미옥, 천성문, 2014),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라 앞으로 자살 유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방법과 치료법을 적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

역사회의 관점에서는 자살 사건 발생 후 즉각 개입하는 기관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지침을 재정립하여 사회적인 2차적 자살 유가족의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살 유가족의 극복요인 및 사후개입방법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계, 상담, 심리적 애도의식, 학교단위 사회개입 프로그램, 종교, 삶의 의미 재구성, 견뎌내기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는 남은 가족 구성원, 친구, 자조모임, 사회적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살 유가족이 되면, 심리·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치유가 가능함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차명자(2014)는 자살 유가족이 2차적 자살을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조기개입, 서비스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환경 마련으로 자살 유가족의 자살을 예방하고, 심리적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도우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명숙, 김가득(2010)의 연구에서는 유가족들이 가족의 자살을 겪으면,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나 자조모임 있다는 것이나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가족이 치유가 가능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ecker(1973)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삶과 죽음, 실재에 대해 정직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살 유가족

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자살한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경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근무, 김진숙(2010)은 심리적 애도의식은 자살자와의 분리를 위한 의례로 이는 각종 백일, 입학, 졸업, 생일 등의 의례가 있듯이 물리적 영결식과 더불어 심리적인 영결식 필요하기 때문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영결을 위한 의례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자살 유가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애도의식 종교적 의식이나 글쓰기, 상담을 통한 애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논의한 바에 따라 자살 유가족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유가족의 정의가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넓은 범위의 사회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Cobain & Larch(2010)는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는 함께 아연실색하게 되고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살로 죽게 될 경우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불안, 혼란, 슬픔, 공포와 싸워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자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에서는 자살자의 가족, 친구, 지인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의 자살 생존자(suicide survivor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최근에는 가족의 자살을 넘어 친구, 지인, 연예인 등 다양한 대상의 자살에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입은 연구들이 다수였다(김지은, 2014; 박은빛, 2015; 송윤주, 2011;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이처럼 자살 유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치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살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

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삶의 모습이나 심리적 상태, 외상 후 긍정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일찍이 Robins 등(1959)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자살 건수에 개입하여 시행한 심리부검 연구는 이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3판(DSM-III)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연구물이 되기도 하였으며(나경세 외 2015), Feigelman & Feigelman(2008)은 4년에 걸쳐 자살 유가족 집단의 자조모임에 대해 연구하여 자살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대처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현숙(2007)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국외에서 가족의 자살로 인한 사별의 장기추적조사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살 유가족들의 정신질환 발생률은 일반군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살 유가족이 겪는 외상이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아픔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복합비애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Knieper, 1999; Mitchell et al 2009; 장현아, 2009; 변재원, 2014). 이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의 차원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의 자살 유가족 삶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명숙, 김가득(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자살한 농촌지역의 어머니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며, 나라마다 자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소개하였다. 중국, 타이완 등의 동양문화권과 영국, 아일랜드 등의 서양문화권 모두 대체로 자살을 범죄, 오명, 수치심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

견은 존재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무라이문화에서는 자살이 충성이나 정절 등의 긍정적 의미로 인식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나라 안에서도 인구학적 배경, 사회문화적 환경, 개인의 가치관, 성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 유가족의 면담, 설문지, 상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연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자살 유가족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극복요인 중 인간 본연의 영성, 삶의 의미 재구성 등의 영역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Rosen (1975, 1976)은 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보인 긍정적인 변화로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각성과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Colucci & Martin (2008)의 연구에서는 자살 생존자에 대한 종교적 경험, 영성의 영역에서 가능한 개입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왕배, 방연상(2013)은 예방 및 치유과정에서 교육, 종교, 시민단체의 3섹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중 종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종교기관은 자원봉사, 교육, 조직운영 등 다양한 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자살 유가족의 치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연구한 김지경, 장현아(2014)의 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과 영성, 종교성향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자신이 속한 종교적 공동체의 선입견과 편견, 낙인으로 더욱 심하게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이종익, 2013; 이명훈, 2014), 앞으로 종교를 초월하는 넓은 의미의 영성, 자

아초월과 관련하여 자살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치유의 과정이 드러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살 유가족을 상담 장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 자살 사후개입 등 자살 유가족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에는 일찍이 자살을 치료하는 심리상담사들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연구Goldstein, Buongiorno, 1984)가 있었고, Kleespies 등(1990)의 연구에서 1983년부터 1988년 동안 심리관련 인턴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자살을 경험한 영향을 분석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대처와 역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험을 연구한 윤성근(201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살 유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상담자의 정신건강 보호, 상담자 교육, 상담자 수퍼비전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자살 유가족 연구의 그 시작에서 최근까지의 연구물들을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살 유가족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수 (2015).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과 치료적 개입. 연세상담코칭연구, 4, 9-31.

- 권석만 (2015).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가득 (2012).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척 고통과 화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버리, 신현균, 한규석 (2013). 남편을 자살로 잃은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91-218.
- 김병철 (2010).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일반, 18(1), 41-63.
- 김왕배, 방연상 (2013). 자살예방과 생존자 치유를 위한 의료종교학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34, 37-60.
- 김용분 (2005).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분, 이정섭 (2006). 자살피해자의 승화하기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5(4), 446-458.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정남 (2015).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183-201.
- 김지경, 장현아 (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 김창학 (2011).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 충동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경세, 백종우, 윤미경, 김현수 (2015) 심리부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신경정신의학, 54(1), 40-48.
- 남순현 (2008).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9, 51-87.

- 박은선, 박지아 (2013).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9(1), 267-299.
- 박지영 (2007).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모과 응두리에서의 비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선 (2015). 자살유가족지원 현황과 과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05, 159-173.
- 변재원 (2014). 내재적 종교성향과 복합비애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자살 유가족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에스더 (2010). 부모 및 친구관계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후유증이 언급된 자살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주 (2011). 유명인 자살 보도 전후의 일반인 자살시도 양상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친구의 자살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52-376.
- 윤명숙, 김가득 (2010).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 지역 어머니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29, 115-148.
- 윤성근 (2015).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무, 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이명훈 (2014). 기독교인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163-199.
- 이승연 (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사후 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이종익 (2013). 자살한 청소년 부모의 떠나보냄 경험.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투데이 (2015). 10.28일자 기사 <자살한 연예인 따라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박선현 기자
- 임정인 (2015). 자살생존자 체험수기에 대한 담화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수 (1998).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아 (2009). 복합비애의 개념(Complicated grief)과 진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03-317.
- 정상혁 (2005).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용역보고서*, 11, 1-128.
- 중앙자살예방센터 www.spckorea.or.kr
- 차명자 (2014). 가족의 자살이 유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1), 157-175.
-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
- 한수미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133-142.
- 황순찬 (2014). 자살행동에 대한 발견적 탐구: 가장 역설적인 자기표현.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순찬 (2015). 자살 유가족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05, 147-157.
- 황정윤, 김미옥, 천성문 (2014). 성인용 애도 책

- 고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1(3), 537-560.
-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AAS)
www.suicidology.org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Cerel, J. (2000). Suicide-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II. Parental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 39(4), 437-444.
- Cerel, J., Padgett, J. H., Conwell, Y., Reed, G. A. (2009) A Call for Research: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Support Groups for Suicide Surviv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3), 269-281.
- Cobain, B., Larch, J. (2010).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Dying to Be Free: A Healing Guide for Families after a Suicide*}. (이혜선, 육성필, 김신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Colucci, E., Martin, G. (2008). Religion and Spirituality Along the Suicidal Pa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2), 229-244.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1), 14-21.
- Dunn, R. G. (1988).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Experience of Suicide Survivors, *Omega*, 18, 175-215.
- Ellenbogen, S., Gratton, F. (2001). Do They Suffer More? Reflections on Research Comparing Suicide Survivors to Other Survivor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1(1), 83-90.
- Feigelman, B., Feigelman, W. (2008). Surviving after Suicide Loss: The Healing Potential of Suicide Support Groups. *Illness, Crisis & Loss*, 16(4), 285-304.
- Feigelman, W., Jordan, J. R., Gorman, B. S. (2009). Personal Growth after a Suicide Loss: Cross-Sectional Findings Suggest Growth after Loss May Be Associated with Better Mental Health among Survivors. *Omega*, 59(3), 181-202.
- Goldstein, L. S., Buongiorno, P. A. (1984). Psychotherapists as suicide survivo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3), 392-398.
- Greenberg, L. S., Paivio, S. C. (1997).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Joiner T. (2012).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Why People Die by Suicide*}. (김재성 역). 서울: 황소자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Jordan, J. R., McMenemy, J. (2004). Interventions for Suicide Survivo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4), 337-349.
- Kleespies, P. M., Smith, M. R, Becker, B. R. (1990). Psychology interns as patient suicide survivors: Incidence, impact, and recover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4), 257-263.
- Knieper, A. J. (1999). The Suicid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4), 353-364.
- Mcmenamy, J. M., Jordan, J. R., Mitchell, A. M. (2008). What do Suicide Survivors Tell Us They Need? Results of a Pilot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4), 375-389.
- Mitchell, A. M., Kim, Y. K., Prigerson, H. G., Marykay, M. S. (2004). Complicated Grief in

- Survivors of Suicide. *Crisis*, 25, 12-18.
- Mitchell, A. M., Sakranda, T. J., Kim, Y. K., Bullian, L., Chiappetta, L. (2009).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1), 2-10.
- Ogata, K., Ishikawa, T., Michiue, T., Nishi, Y., Maeda, H. (2011). Posttraumatic Symptoms in Japanese Bereaved Family Members with Special Regard to Suicide and Homicide Cases. *Death Studies*, 35(6), 525-535.
- Peters, J. (2006). Bereavement after a suicide - a survivor's perspective. *Spirituality and Health International*, 7(2), 80-87.
- Rogers, J. et al (1982). Help for families of suicide: Survivors Support Program.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7(6), 444-449.
- Rosen, D. H. (1976). Suicide Survivors: Psychotherapeutic Implications of Ego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6(4), 209-215.
- Santos, S., Tavares, S., Campos, R. C., (2015). Distress in Portuguese Family Members Bereaved by Suicid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oss and Trauma*, 20(3), 267-280.
- Susan, A. (2000). *The Journey from Abandonment to Healing*. New York: Susan Golomb Literary Agency.
- Sveen, C. A., Walby, F. A. (2008). Suicide Survivors' Mental Health and Grief Reactions: A Systematic Review of Controlled Studi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1), 13-29.
- 1차원고접수 : 2016. 01. 29.
수정원고접수 : 2016. 03. 21.
최종게재결정 : 2016. 03. 23.

Trends and Challenges on Research of Korean Studies in Suicide Survivors

Young-a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ae-Won Bye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ies on suicide survivors—who are at a high psychological risk—and to direct future studie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uicide survivors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2 research papers, including 21 thesis papers and 31 journal articles, were analyzed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basic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factors contributing to overcoming grief and post intervention program of suicide.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crutiny of basic information of the studies showed a gradually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on suicide survivors. Second, through examining the research subject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concept of suicide survivors as a social community was verified. Third, examining the research methods showed that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had appropriately applied treatment methods in various cases. Fourth, examin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overcoming grief and post intervention program of suicide revealed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 counseling, psychological mourning rites, community-level post intervention program of suicide, and religion. Finally, these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and a proposal for a follow-up study was offered.

Key words : *suicide risk, suicide survivors, post intervention program of suicide*

〈부록〉 분석에 사용된 논문 목록

번호	출판 연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1	2005	김용분	박사 (한양대)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경험
2	2006	김용분 이정섭	정신간호학회지	자살피해자의 승화하기 경험
3	2007	이승연	상담학연구	학교장면에서의 자살사후 중재
4	2007	홍현숙	박사 (가톨릭대)	가족의 자살사망이 유가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5	2008	남순현	인문사회과학연구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6	2008	유정화	석사 (고려대)	한국에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연구: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
7	2009	임석택	한국범죄심리연구	민원을 제기하는 군내 자살사망자 유족의 특성에 대한 연구
8	2010	김미경	석사 (경남대)	청소년의 아동의 피학대 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노출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목표불안정성의 매개효과
9	2010	김병철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10	2010	김신옥	모래놀이치료연구	엄마의 자살을 목격한 10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애도
11	2010	박언하 최종욱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자살 관련 미디어 노출빈도에 따른 유아의 죽음불안의 차이연구
12	2010	박지영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13	2010	배주미 이승연 김은영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14	2010	서에스터	석사 (고려대)	부모 및 친구관계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후유증이 언급된 자살보도를 중심으로
15	2010	윤명숙 김가득	한국가족복지학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16	2010	이근무 김진숙	한국사회복지학	자살자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17	2010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	한국인구학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18	2010	최바울 서영석	미래교육연구	초등학교에서의 자살 사후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부록> 분석에 사용된 논문 목록

(계속 1)

번호	출판 연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19	2011	김창학	석사 (경기대)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 충동사고에 미치는 영향
20	2011	송윤주	석사 (연세대)	유명인 자살보도 전후의 일반인 자살시도 양상의 비교
21	2012	김가득	박사 (전북대)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적 고통과 화해
22	2012	김벼리	석사 (전남대)	남편을 자살로 잃은 중년 기독교인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23	2012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친구의 자살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24	2012	한수미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대중매체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5	2012	홍진표	대한토목학회지	자살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슬픔
26	2013	김벼리 신현균 한규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남편을 자살로 잃은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27	2013	김왕배 방연상	보건과사회과학	자살예방과 생존자 치유를 위한 의료종교학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
28	2013	김은혜	석사 (대구가톨릭대)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 및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충동성의 조절효과
29	2013	김태현	석사 (연세대)	군내 간부 자살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간부 자살사고 실태와 사례를 중심으로
30	2013	이종익	박사 (숭실대)	자살한 청소년 부모의 떠나보냄 경험
31	2013	박민심	석사 (충남대)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의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
32	2014	김용분	석사 (호남신학대)	자살 유가족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연구
33	2014	김지은	석사 (연세대)	자살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기시 대화상대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
34	2014	김진형 이지현 이명수	정신보건	학교기반의 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부록> 분석에 사용된 논문 목록

(계속 2)

번호	출판 연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35	2014	변재원	석사 (서울신학대)	내재적 종교성향과 복합비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자살 유가족을 중심으로
36	2014	오지희 김민정	한국인터넷언론 산업학회논문지	미디어 자살 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37	2014	이명훈 ^a	박사 (연세대)	기독교인 자살생존자의 애도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연구
38	2014	이명훈 ^b	신학논단	친구를 잃은 대학생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39	2014	이명훈 ^c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기독교인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40	2014	정나은	석사 (한양대)	지난 13년간 TV방송 자살뉴스 내용분석: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에 주목하여
41	2014	차명자	한국복지실천학회	가족의 자살이 유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연구
42	2014	최미희 권지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청소년 자살 사후 학교중심 위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
43	2015	강명수	연세상담코칭연구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과 치료적 개입
44	2015	김은이 송민호 김용준	한국언론학보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45	2015	김정남	한국재활심리연구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46	2015	김정희	석사 (상명대)	친구의 자살 및 자살시도 경험이 남녀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47	2015	박미라	신학과 실천	위기집단상담 사례연구 .서울의 A고등학교의 자살 사후 개입.
48	2015	박은빛	석사 (한국상담대학원대)	의미있는 친구의 자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49	2015	박혜선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자살 유가족 지원 현황과 과제
50	2015	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구진	상담학연구	우울과 자살성의 관계: 자살 허용적 태도와 지인 자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51	2015	윤성근	석사 (고려대)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52	2015	황순찬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자살 유가족 연구